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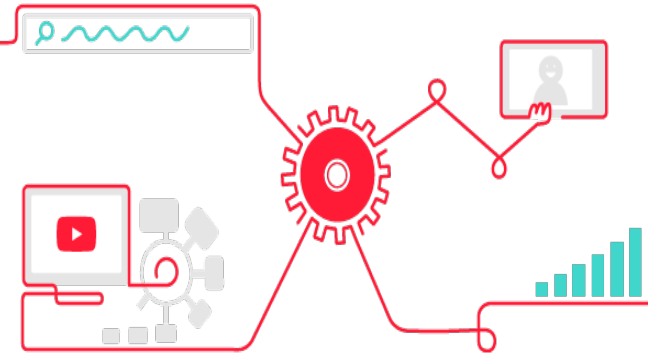
# 3조 Ohtube

정지연 김주향 손태선 이진주 양동철  
담당 : 강승식 교수님



## 1. 프로젝트 소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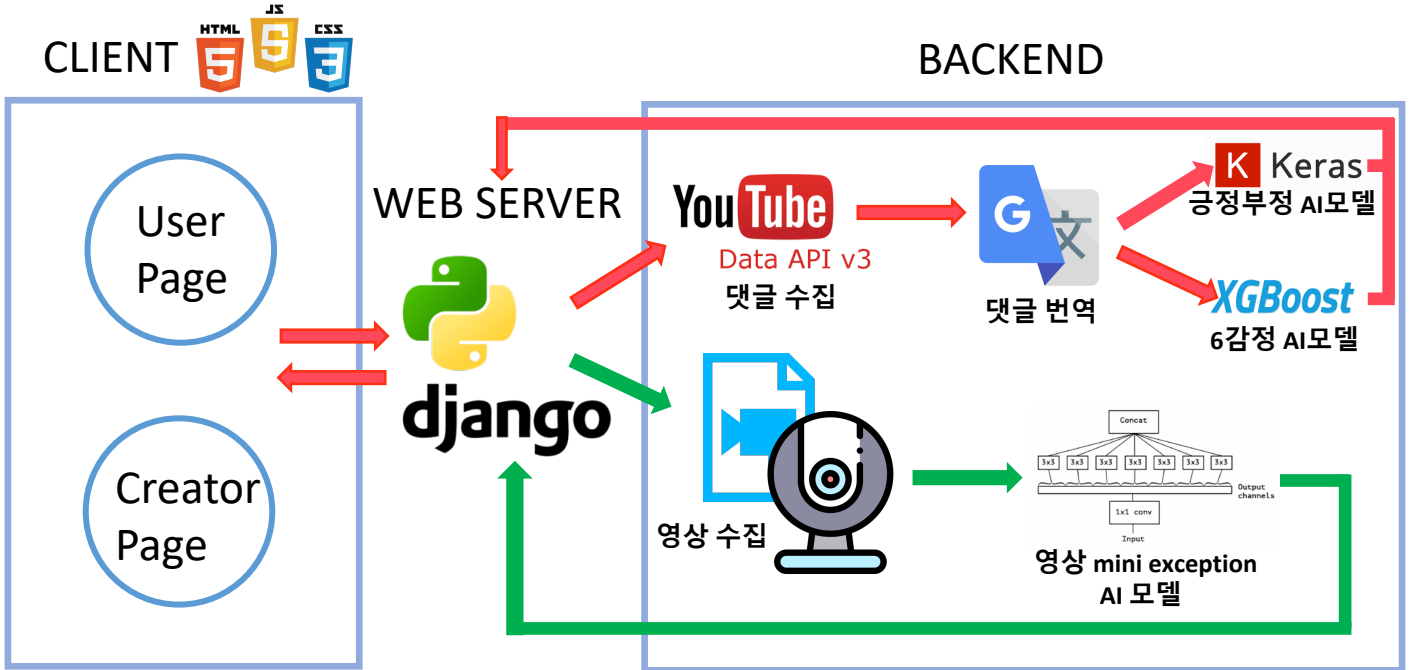
“댓글과 영상에서 감정을 읽다.”



유튜브는 단순한 뉴미디어가 아닌 분석의 가치가 있는 새로운 정보의 바다입니다. 각종 영상 콘텐츠들이 범람하는데 그것을 평가하는 수치는 좋아요 갯수와 같은 단순한 수치들 뿐입니다. 이 단순한 수치를 토대로 크리에이터들은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하고 광고 마케터들은 수치에 따라 광고를 책정 합니다. 따라서 **영상을 평가하는 다양한 지표를 만들어 내어 기존의 유튜브 통계 웹서비스를 개선**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유감(유튜브 감정분석)에서는 **유튜브 영상과 댓글에서 감정을 분석**하여 시청자에게는 원하는 감성의 영상과 댓글을 골라 볼 수 있도록 보여주고 크리에이터에게는 시청자의 반응을 웹캠으로 가져와서 감성을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여 시청자가 어떤 감성으로 본인의 영상을 감상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보여줌으로써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시청자가 양질의 영상을 창작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.

## 2. 시스템 구조도



# 3. 시나리오



- >> 사용자는 URL을 전송하고 사용자용 또는 크리에이터용 중 선택해 유형별 감성 분석을 받습니다.
- >> 입력받은 영상(URL)에 해당하는 댓글을 번역한 후 학습된 **keras,xgboost model**에 각각 넣어 감성 분석을 수행 합니다.
- >> 입력받은 영상(URL)과 사용자의 웹캠에서 받은 영상의 표정을 학습된 **mini exception model**에 넣어 감성 분석을 수행 합니다.
- >> 앞의 과정을 거쳐 생성된 분석 결과를 DB에 저장하고 선택한 유형에 따라 웹을 통해 보여줍니다.

# 4. 기대 효과

댓글

몇천개의 수많은 댓글들이 뒤죽박죽 섞여있다.

1. 보고싶지 않은 댓글도 어쩔 수 없이 봐야한다.  
2. 외국어 댓글의 경우, 어떤 감성인지 직관적으로 알기 힘들다.

댓글

전체 댓글을 빠르게 파악 할 수 있다.

1. 긍정/부정/중립으로 댓글 필터링이 가능하다.  
2. 전 세계 언어로 된 댓글의 감성을 파악 가능하다

영상

많은 영상들 중, 원하는 감성의 영상을 보아서 보기 어렵다

크리에이터는 영상으로, 시청자는 댓글로만 소통이 가능하다

영상

동영상을 분석하여, 어떤 감성을 가진 영상인지 알 수 있다.

시청자의 웹캠 영상을 감성 분석하여 새로운 통계 자료를 제공한다.  
크리에이터 - 시청자간 영상으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.